

3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 종과

9·13 부동산 대책

세부담 상한 300%로 올려
종부세 과표 3억~6억 구간 신설
과표 3억원 이상 공동주택
광주·전남엔 없어 영향 적을 듯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다시 한 번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13일 고가주택 종부세율 상향과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강화, 임대사업자 대출 규모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10면>

하지만 세 부담을 강화하고 대출을 조이는 초강도 대책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광주·전남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종과하기로 했다. 또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에서 300%로 올리고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2%p 인상키로 했다. 과표 3억원은 시가 18억원, 공시지가 12억7000원에 해당한다. 6억원은 공시지가 16억5000만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중구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시가 23억6000만원에 해당하는데 광주·전남에는 전무하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경우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 1주택 세대자 규제지역 안에서 새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막힌다.
오는 14일 대출 신청부터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더욱 조인다. 1주택 세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을 적용받지만 2주택 이상 세대의 경우엔 10%포인트씩

강화된 LTV·DTI가 적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다주택자에게 각 40%로 적용되던 LTV와 DTI는 30%로 강화된다.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도 막힌다.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인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통상 60~80% 수준의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또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을 마치고 양도하는 주택(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대해 양도세 종과를 배제했다. 앞으로는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 종과를 피할 수 없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018 영호남 문화대축전

오늘부터 3일간 광주 상무시민공원서 열려

광주일보·매일신문 주최
전라도 경상도 39개 시·군
화합의 특산물 장터 운영

국민 대통령과 영·호남 상생발전을 기원하는 '2018 영호남 문화대축전'이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광주일보와 매일신문이 주최하고 광주시, 전남도, 대구시, 경북도가 함께 한다. 2014년 서울 시청광장서 처음 시작해 매년 영남과 호남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이 5회째다.

'화합과 상생의 영·호남'을 주제로, 문화가 통하고 사람이 어우러지며 영·호남이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 지역 특산물을 함께 나누는 상생 장터 등이 열린다. 상생 장터는 영호남 39개 시군에서 59개 부스를 운영, 전라도와 경상도의 물산·문화가 어우러지는 '화개장터'를 연상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 배, 장흥 표고버섯, 완도 미역 등 전남지역 농수산물과 경북·대구지역의 사과, 꽃감, 오미자 등 영호남권 대표하는 품목을 시종가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한다. 또 100원 경매·역경매 등 경매행사도 진행한다.
대구·광주 상생홍보관과 전남·경북 농특산물을 비교 전시하는 공동홍보관도 운영한다. 두 지역의 대표 농산물, 공동 브랜드, 식품명인, 도지사 품질인증, 전통주 등 총 200여 품목을 선보인다.
홍보관 전시 품목은 소외계층의 먹거리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 푸드뱅크에 기탁해 노인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기로 했다.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처장은 "예로부터 전라도는 배를 팔아 경상도 사과를 사먹고, 경상도는 간고등어를 팔아 전라도 굴비를 사먹었다"며 "활발한 문화 교류와 특산품 직거래를 통해 영호남의 대통령과 화합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 7천만원 배상하라”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 신신호)는 13일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관련 기사 6면>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등에게 5·18 관련 4개 단체에는 각각 15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조 신부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회고록 일부 표현을 삭제하

지 않고는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역사적 평가를 반대하고, 당시 계엄군 당사자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변명적 진술을 한 조서나 일부 세력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5·18 발생 경위, 진행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5·18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5·18과정에서 무력적인 괴잉진압을 한 당사자의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는 보기 어렵다”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주장처럼 5·18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수 있고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힐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고증을 거친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역사의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자유를 위한 깃발’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5·18단체와 유가족은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앞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이개호 농식품부장관 인터뷰 ▶5면
신팔도유람 - 경기도 성지순례 ▶18면

제5회 14세 & 세계 & 경제

어린이, 청소년, 어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다시 어린이 쪽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투명한 막은 나를 어른 쪽으로 밀어 가고 있다. 느리지만 빠르게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서서히 나는 20살(성인)이 되어간다. 나는 어른이 되기 싫다. / 문가연 / 장래의 꿈 : 일러스트레이터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에는 두근대고 설레서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드라마가 끝날 때는 아쉽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김다빈 / 가보고 싶은 곳 : 아이슬란드에 오로라를 보러 가고 싶다.

광주 시내 중학교에서 특별수업을 진행한 후 중2학생들(만14세)에게 주변에 있는 '경계선'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작고 작은 그들의 세계를 도대체 무엇이 가로막고 있을까요?
스타미치 모토유키(작가) / 2018광주비엔날레
*이 프로젝트는 광주일보와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함께합니다. 작품이 실린 신문은 광주비엔날레에서 전시됩니다.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어룡대로 603번길 20 (소문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원대로 520(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자중: 770kg, 복합회전모드 연비 (CS연비): 9.7km/ℓ (도심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3km/kWh (도심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₂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를 이미지는 국내 시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